



연중 제32주일(11월 12일) 열 처녀의 비유(마태 25,1-13)



열 처녀의 비유

그림 피에테르 리사에르트 | 1600-1620년, 캔버스 위 유화, 105x73cm, 프라도 미술관, 스페인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50번 “만방에 나아가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그때에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2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5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7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12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나오.’ 하고 청하였다.”(마태 25,8)

이 기름은 착한 행실 또는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천한 착한 행실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나누어 봅시다.

†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복음에 나오는 기름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틀리(영국)의 이야기입니다.36세에 대장암 4기 진단 후, 간과 폐에 전이되어 25회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화학 요법 치료도 견뎌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글을 소개합니다.

“살고 싶은 날들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닻으라고 소리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던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 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즙도 마셨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두 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 아이 머리 땅아줘야

하고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 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가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려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년 중반이 아니라 30년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 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알베르 까뮈)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36번 “주 날개 밑”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